

국내 노후대비 자산구조에 관한 연구

박동인¹ · 조길호²

¹²경북대학교 통계학과

접수 2015년 6월 8일, 수정 2015년 7월 16일, 게재확정 2015년 9월 1일

요약

최근 들어 OECD 국가 중 국내의 고령화 진입 속도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율 및 노인 부양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후대비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내 중장년층 가구주들의 노후대비 유무와 노후준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집단별 포트폴리오 구축 유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으로써 금융과 부동산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노후대비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요인 뿐 아니라 보유 자원들의 정도에 따라 노후대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보유 자원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노후대비가구와 미대비가구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후대비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내의 고령층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 요인 등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또한, 더 정교한 추정모형을 통해 더 나은 시사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용어: 노후대비, 은퇴, 자산, 중장년층.

1. 서론

우리나라는 2002년대 무렵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내의 생산 가능 인구 (15세-64세)는 2016년을 기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근로자 평균 은퇴연령이 57세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생산과 소득분배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Han과 Lee, 2013; Hong, 2014).

이 중 가구주가 40대 이상인 중장년층의 가구는 고령층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이들 가구는 직장이나 사업체 별로 은퇴연령이 상이할지라도 은퇴에 임박하거나 이미 은퇴한 가구로 나타나며 이러한 가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대비와 관련된 재무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Clark (2004)는 특정 시기에는 근로를 통해 충분히 수입을 증대시키고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하여야 하는데 경제활동에서 은퇴해서 저축한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통계청 (2012)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대비 방법으로 사적연금과 개인자산에 의지하는 비중이 약 50% 이상으로 국민연금이나 기타공적연금에 의존하는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 되었다. 또한 윤석명 (2013)은 국내 노인인구의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계를 위한 대비가 부족한 편이라고 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¹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통계학과, 석사과정.

² 교신저자: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E-mail: khcho@knu.ac.kr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의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낮고 재산소득이나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등과 같은 자산과 연금에 의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공적보장 수준을 낮추려는 계획을 고려하여 미래에는 공적부분보다 사적부분의 은퇴 후 소득보장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 비해 공적 제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유럽권의 연구들에서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구의 노후대비는 주로 개인 자산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구가 개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과거 및 현재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닥쳐 올 노후를 위해 자금을 형성하지 못한 가구는 현재 마련된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국내의 노인 빈곤율은 4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청(2012)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및 60대의 60% 이상이 행복하지 않은 노년 생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노후에 대한 복지 제도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산 가능 인구 연령 때부터 노후를 위한 지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송혜립(1998)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년기 가계의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도 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이 노후준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중 퇴직금의 액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가구주들이 경제적 대비 없이 은퇴하거나 무소득 상태로 노후상태에 진입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가구의 자산구조 및 포트폴리오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필요한 현실이다. 이들이 노후를 위해 어떻게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고령사회를 위한 정책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구별로 노후대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에 따라 노후대비 여부 및 노후대비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 가구가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하여 이들이 고령층에 접어들었을 경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노후 대비 여부에 따른 자산의 구축유형 차이를 살펴보고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 집단의 현황을 분석하여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노인 빈곤율, 노인 부양 등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비교분석을 위해 세대별로 노후준비에 대한 지출 정도와 격차발생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의 고령화 사회, 노인 복지, 노후 대비 지출 영향에 미치는 변수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2010년부터 시작 된 패널형태의 조사로 가구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국내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확보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는 패널데이터는 아니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표본수를 가진 복지 관련 대표 자료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여러 단계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종합적인 비교분석이 자세하게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주로 2013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위한 분석을 진행한다.

2.2.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이 연구에서는 2013년도 데이터를 주로 활용했으며 총 10,000명의 가구가 응답했고 이 중에서 연금수급대상연령인 65세 이상의 연령과 40세 미만의 가구주를 제외하고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층 가구주인 5,462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에 사용할 변수는 다음 Table 2.1과 같다.

Table 2.1 Variable definition and measurement method

	Old age prepare or not	1= Prepared, 0= Not prepar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1=Male, 0=Female
	Age	Continuous variable
	Education	1=High-school diploma or higher 0=Middle-school diploma or below
	Marital status	1=Married, 0=Single, Bereavement, Divorce
	Number of household member	Continuous variable
	Residential area	1=Capital territory, 0=Noncapital territory
Asset characteristics	Total assets	Continuous variable (log)
	Financial assets / Total assets	Continuous variable (log)
	Ordinary income	Continuous variable (log)
	Debt assets / Total assets	Continuous variable (log)
	Real estate assets	Continuous variable (log)
	Owner-occupation	1=Ownership, 0=Lease, Rent with deposit, Monthly rent, Etc

노후준비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 및 설문 항목별로 상이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한 사례를 기반으로 노후준비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에 소득은 경상소득 변수를 활용하고, 금융자산과 부채자산은 총 자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추출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가구의 총부동산은 자산 포트폴리오 연구 중 실물자산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총부동산보유규모, 총부동산 형태, 총자산대비 총부동산 비중 등으로 측정한다. 이 연구의 경우 현재 보유한 총부동산에 대한 가치 등을 합하여 가구주가 판단한 총부동산액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주택 소유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변수로 활용하였다.

2.3. 연구 모형 설정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방정식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함수로써 종속변수에 대한 행동을 할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종속변수는 각각 모형별로 자산 정도 (총부동산액,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총자산대비 부채자산)를 활용하였으며 모형별로 각기 다른 설명 변수들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자산정도에 대한 분석에서 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 Y_i = \beta + \beta_1 X_{1i} + \beta_2 X_{2i} + \beta_3 X_{3i} + \beta_4 X_{4i} + \beta_5 X_{5i} + \beta_6 X_{6i} + \beta_7 X_{7i} + \beta_8 X_{8i} + \epsilon.$$

$$\log Y_i = (\text{총부동산액, 금융총액/총자산, 부채총액/총자산})$$

$$X_1 = \text{성별}, X_2 = \text{연령}, X_3 = \text{학력}, X_4 = \text{결혼여부}$$

$$X_5 = \text{거주지역}, X_6 = \text{가구원수}, X_7 = \text{자가소유여부}, X_8 = \text{경상소득 (log)}$$

전체적인 모형은 노후대비가구와 미대비가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자산정도가 각각 총부동산액, 금융총액/총자산, 부채총액/총자산이 활용되었다. X_i 는 설명변수로 첫 번째 모형과 같이 정성적인 변수와 연속적인 변수를 혼합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노후대비 모형과 달리 자원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요인인 성별, 연령, 학력, 결혼, 거주 지역, 가구원수와 자원요인인 경상소득 변수만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Minitab 14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관련 변수들의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중장년층의 연령별 경제적 노후 준비 정도와 준비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각의 모형에 맞게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중장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장년층을 빈도 분석한 변수별 특성은 Table 3.1과 같다. 총 분석대상 가구는 5,462개의 가구였으며 노후생활을 대비하고 있는 가구는 4,350개의 가구이고 대비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1,112개의 가구로 나타났다.

Table 3.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households

		Total		
		households (n=5,462)	Prepared (n=4,350)	Not prepared (n=1,112)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Gender	Male	4,607 (84.3)	3,829 (88.0)	778 (70.0)
	Female	855 (15.7)	521 (12.0)	334 (30.0)
Age	40-44	1,310 (24.0)	1,121 (25.8)	189 (17.0)
	45-49	1,269 (23.2)	1,074 (24.7)	195 (17.5)
	50-54	1,208 (22.1)	1,011 (23.2)	197 (17.7)
	55-59	902 (16.5)	721 (16.6)	181 (16.3)
	60-64	773 (14.2)	423 (9.7)	350 (31.5)
Owner-occupation	Ownership	3,480 (63.7)	2,692 (68.1)	518 (46.6)
	Lease	1,005 (18.4)	817 (18.8)	188 (16.9)
	Rent with deposit	712 (13.0)	417 (9.6)	295 (26.5)
	Monthly rent	94 (1.7)	45 (1.0)	49 (4.4)
	Etc	171 (3.1)	109 (2.5)	62 (5.6)

전체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 성별은 남자가 84.3%로 여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의 비율이 각각 16.5%, 14.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주택소유상태는 본인 명의의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가 63.7%로 나타났고 전세 18.4%, 보증부 월세 13%, 기타 3.1%, 월세 1.7% 순으로 나타났다.

3.2. 노후대비 유무에 따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후를 대비하는 유무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자산 포트폴리오의 차이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노후대비유무 자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식의 기본 가정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부동산액,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총자산대비 부채자산별로 각각 3개의 회귀식에 포함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고 VIF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수 간 상관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차항의 독립성 검토를 위해 확인한 Durbin-Watson의 통계량을 계산한 결과 유의한 값이 도출되어 잔차 간 자기상관 문제 또한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old age prepare or not

	Real estate assets		Financial assets/Total assets		Debt assets/Total assets	
	(Model 1)		(Model 2)		(Model 3)	
	Not prepared	Prepared	Not prepared	Prepared	Not prepared	Prepared
	B	B	B	B	B	B
Gender	.030	-0.82	.053	-.111*	.160	-.234**
Age	.064***	.029***	-.009	-.012***	-.017*	-.013**
Education	-1.072***	-.478***	-.125	.162***	.147	-.024
Marital status	.126	-.163	-.036**	-.021	-.079	.402*
Residential area	.079	.021	.087	-.034	.036	.087
Number of household member	.172*	.017	-.037	-.031*	-.142**	.014
Owner-occupation	8.174***	.27***	-2.959***	-1.716***	-.898*	-.495***
Ordinary income	.162*	.620***	.064	.172***	-.166**	-0.78
Constant value	-3.024***	3.326	-.242	-1.127	1.982	-3.44
F	502.307	161.195	161.416	319.334	18.474	14.472
Nagelkerke R ²	.785	.743	.539	.471	.482	.521
Hosmer & Lemeshow	.472	.362	.523	.498	.512	.418
Durbin-Watson	2.005	1.637	1.865	1.846	2.017	1.959

* $p < 0.05$, ** $p < 0.01$, *** $p < 0.001$

3.2.1. 노후대비 유무별 총부동산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Table 3.2의 모형 1을 통해 총부동산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후대비여부에 따라 미 대비 가구와 대비가구별로 살펴보았다. 미 대비가구의 총부동산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 학력, 가구원수, 자가소유여부, 경상소득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총 부동산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비가구의 총부동산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 학력, 자가소유여부, 경상소득 변수로 미 대비가구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총부동산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의 경우 미 대비가구에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총부동산액이 많다는 결과를 보였지만 대비가구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 및 학력, 지역, 가구원수 등이 부동산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보편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이와 대비가구 및 미 대비가구 모두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소득이 높아 부동산자산에 투자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소비와 동시에 투자이기 때문에 주택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부동산자산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선행연구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위의 결과에 따라 노후대비유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hat{V}_i &= -3.024 + 0.064 \times \text{연령}_i - 1.072 \times \text{학력}_i + 0.172 \times \text{가구원수}_i \\ &\quad + 8.174 \times \text{자가소유여부}_i + 0.162 \times \text{경상소득}_i(\text{미대비}) \\ \hat{V}_i &= 3.326 + 0.029 \times \text{연령}_i - 0.478 \times \text{학력}_i + 0.275 \times \text{자가소유여부}_i \\ &\quad + 0.620 \times \text{경상소득}_i(\text{대비})\end{aligned}$$

3.2.2. 노후대비 유무별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2의 모형 2를 통해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후대비여부에 따라 미 대비가구와 대비가구별로 살펴보았다. 미 대비가구의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혼유무와 자가소유 여부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대비가구의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가구원수, 자가소유여부, 경상소득 변수로 미 대비 변수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가소유여부 변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비가구는 미 대비가구와는 다르게 남자보다는 여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거나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금융적 여유가 높다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적 여유가 높기 때문에 자산을 저축하여 노후를 대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begin{aligned}\hat{V}_i &= -0.242 - 0.036 \times \text{결혼여부}_i - 2.959 \times \text{자가소유여부}_i(\text{미대비}) \\ \hat{V}_i &= 0.609 - 0.111 \times \text{성별}_i - 0.012 \times \text{연령}_i - 0.162 \times \text{학력}_i - 0.031 \times \text{가구원수}_i \\ &\quad - 1.716 \times \text{자가소유여부}_i + 0.172 \times \text{경상소득}_i(\text{대비})\end{aligned}$$

3.2.3. 노후대비 유무별 총자산대비 부채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2의 모형 3을 통해 총자산대비 부채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후대비여부에 따라 미 대비가구와 대비가구별로 살펴보았다. 미 대비가구의 총자산대비 부채자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

가구원수, 자가소유여부, 경상소득 변수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수록, 경상소득이 낮을수록 부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비가구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부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 따라 노후대비유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widehat{V}_i &= 1.982 + 0.017 \times \text{연령}_i - 0.142 \times \text{가구원수}_i - 0.898 \times \text{자가소유여부}_i \\ &\quad + 0.166 \times \text{경상소득}_i(\text{미대비}) \\ \widehat{V}_i &= 0.344 - 0.234 \times \text{성별}_i - 0.013 \times \text{연령}_i - 0.402 \times \text{결혼여부}_i \\ &\quad - 0.495 \times \text{자가소유여부}_i(\text{대비})\end{aligned}$$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가 소유여부는 노후대비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주택자산은 소비재이면서 투자재이기 때문에 부채를 안고 부동산 자산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적어서 도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40세-64세의 연령층을 중장년층으로 구분하고 해당 연령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노후대비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층 가구가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노후 대비 여부에 따른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축유형 차이, 노후대비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다.

노후대비 유무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자산구조를 살펴본 결과 총부동산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미대비가구와 대비가구 모두 자가소유여부와 경상소득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총자산 혹은 총부동산액을 형성하는 큰 요소가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및 총자산대비 부채자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두 자가소유여부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채를 통한 투자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통요인을 제외하고 대비가구의 경우 경상소득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으로써 금융과 부동산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국내의 중장년층 가구는 금융뿐 아니라 부동산자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 차원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노후대비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Clark, R. L. and Burkhauser. (2004). *The economics of an aging society*, Blackwell Publishing, Oxford, New Jersey.
- Han, J. and Lee. H. (2013). A financial projection model on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 131-153.
- Hong, Y. W. (2014). A study on the invigorating strategies for open government data.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 769-777.
- Song, H. L. (1998). A study on the expenditure state of midlife households for elderly life's preparatio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 133-149.

- Statistics Korea. (2012).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Inside Journal*.
- Statistics Korea. (2013).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Inside Journal*.
- Yoon, S. M. (2013). Income distribution of the elderly and desirable income support directions, *Health-Welfare Policy Forum*, **206**, 7-17.

A study on the financial structures for the old age preparations in Korea

Dong In Park¹ · Kil Ho Cho²

¹²Department of Statis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8 June 2015, revised 16 July 2015, accepted 1 September 2015

Abstract

into aging is the most rapidly increasing among the OECD countries. Consequently,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forms of portfolio establishment by group, the factors affecting the old age preparation, and the presence of middle-aged households' preparation for the old ages in order to forestall social problems like the poverty ration of elderly that have been caused by the rapidly aging society. The result shows that the portfolio for the old age preparation can be expanded if a combination product of finance and real estate is developed as a means of old age preparation. Upon the results of the study above, it can be seen that the old age preparations differ according to not only the demographic elements, but also the extent to how much resources one holds. Especially,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holding resources vary householder by household depending on whether they prepare for the old ages or not.

Keywords: Asset, middle-aged class, old age preparations, retirement.

¹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tatis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²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E-mail: khcho@knu.ac.kr